

“은행·증권 거래 한 통장으로” KB국민은행 ‘에이블 플러스 통장’ 42만 계좌 돌파



KB국민은행은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 열풍이 지속하면서 'KB 에이블 플러스 통장' 신규 계좌개설 좌수가 38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기준 누적 계좌개설 좌수는 42만6천 개로 집계되며 잔고는 1조5천690억 원을 넘어섰다.

에이블 플러스 통장은 은행 계좌에서 직접 증권 거래가 가능한 은행·증권 하이브리드 계좌다.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주식매수 대금을 CMA RP로 운용해 추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했다. 증권사로 매매 대금을 송금하는 절차 없이 입출금 통장의 잔액으로 바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결제를 비롯해 공과금 이체, 급여 이체 실적에 따라 전자금 이체 수수료,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 수수료, 타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KB스타클럽 MVP·로얄스타 고객은 KB증권에서 공모주 청약 시 250% 우대 한도를 받을 수 있다

KB금융그룹은 고객들이 그룹 계열 금융사를 통한 자산 관리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KB스타뱅킹'을 새로 개편했다.

앱을 통해 KB증권의 '이지 주식 매매', KB국민카드의 'KB페이 간편결제', KB손해보험의 '스마트 보험금 청구' 등 그룹 6개 계열사의 핵심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다른 증권사와도 업무 제휴를 통해 KB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증권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장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금융에 대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